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12:1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나무의 좋은 것들에 참여케 하셨으니, 이러한 복으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12:1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복음은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18) 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존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로 이끌어 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 본다면, 실로 절망적입니다.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의 막바지 길로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현실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UN이 세계에 화평을 가져 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현실주의가 우리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층이라고 부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현실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도와 주고 유지할 어떤 종류의 종교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신문들은 항상 비논리적인 이단적 종교를 대중에게 출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라구나 계곡에서 그들이 목상하여 안정과 화평과 미와 사랑과 영접됨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짜릿한 느낌을 가지는 비논리적인 종교적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논리적인 종교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인 관계를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논리적으로 따지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이것이 논리에 맞는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그에게 모두 바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나의 생활을 나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기 때문이며,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여정과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바로 된 생각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세상을 본받는 것을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료들간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이 별나게 할 것이 무엇이나? 모든 사람이 다하는 일인데, 너도 해 보아라!’ 동료들이 세상을 본받도록 강요합니다. 잡지나 TV에서 세상의 달콤한 어떤 기본을 따르지 않을 때에, 당신은 무엇이 빠져있는 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본받고 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통해 그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 과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강한 어떤 의지나 나의 소원을 성취해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은 나의 생활에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 앓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 내가 이것을 했더라면, 오, 내가 저것을 했더라면’ 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했다면, 아마 내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거, 동행할 때에, 내일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박진감 넘치는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대한 그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실 때에, 날마다 무슨 일을 나에게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12:3)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나는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대 가운데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차의 시동을 걸 때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믿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활용할 때에 우리 자신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마치 자신이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 스스로 작은 상아탑 을 쌓고,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금전을 축적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사역을 자신의 사리 사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통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를 높이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높이 받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당신의 영향이 감소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아직도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지 않고, 물질의 욕심이나 허영이 동기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나,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불의한 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그들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하는 일이므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돌아 다니며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12:4)

나의 눈은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써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은 듣는 기능을 절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몸에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12:5)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몸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보리 채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몸의 지체이며, 다른 지체를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죽여도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식별하여, 그를 대항하여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된다. 우리는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나사렛교, 오순절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갈등을 일으켜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살피면서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였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이나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나,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직책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는데 용기가 대단할 것이며,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가락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이 하는 일을 칭찬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은 직분과 그가 말은 직분과 함께하여 주님의 몸을 이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입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각자의 지체에 충실하여 성령님의 지시에 의하여 한 몸으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직분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우리는 서로가 하나이며,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12:6)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12:7)

섬기는 목회의 일이면, 기다려야 하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12:8)

교회에 권위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주저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은사를 실행하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행정을 맡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함으로 할 것이며, 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12:9상)

은혜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짐이란 사람이 텍사스의 델리오 기차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인 모조의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조의 5불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하지 맙시다. 위선적이고 겉으로만 하는 사랑은 하지 말고, 참 사랑을 합시다!

이제 바울은 권위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권위의 구절들은 그 자체가 그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씩 읽어 가면서 의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12:9하)

옳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중의 하나는 옳이 악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옳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싫어 한다고 했으며, 악을 용납하거나 수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10)

나를 뒤로 돌리고, 형제를 먼저 존경하며,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12:11-12)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오!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12:13)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갈보리채플에서 이러한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교회 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그러한 자금이 없다고 말하고 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12:14-15)

다른 형제의 감정 상태에 민감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12:16)

모든 작은 일일까지 권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상컨대, 로메인 목사(최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는 이 말씀으로 대성공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권위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은사를 받아 봉사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12:17)

진실한 마음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12:18)

지금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도저히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선택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힘써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물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12:19-20)

이 말씀은 실제로 잠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선행을 통하여 당신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얼굴에 솥물을 놓는 듯한 부끄러움을 주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12:21)

그래서 아주 큰 권위는 여기서 목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9절로 돌아가서 각 구절마다 목상하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당신 생활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목상함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권위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은 목상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권위의 말씀들을 목상하고, 실행하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때에, 나의 마음속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줌을 발견합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직접 나의 실수와 약한 점을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권위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